



2022.7.11.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48호

#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삶의질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2. 7. 11.

Vol. 48

ISSN 2733-8258

발행일 2022년 7월 11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삶의질그룹장 민보경

요약

I. 연구의 필요성

II. 1인 가구의 실태

III. 1인 가구의 행복 측정

IV. 1인가구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V. 결론: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제고 전략

참고문헌

-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여럿이 같이 모여 하나의 생활단위를 영위해 나가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으나 현재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
  -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증가 추이를 보면 자발적 동기에 의한 젊은 세대의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1인 가구는 전형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행복을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제고 전략을 위한 미래 전략 방향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의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 다인 가구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 행복감, 생활 수준 만족도, 건강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안전감 만족도, 미래의 안정에 대한 만족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낮은 편
-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공통적으로 생활 수준의 만족도, 건강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안정에 대한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등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은 경향**
  -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1인 가구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다인 가구 모형에서는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 40-50대 중년 1인 가구,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별 차별적 특징이 나타남**
  - 생활 수준과 일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연령의 1인 가구의 행복과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미래의 안정에 대한 만족도, 몸이 아파 거동하기 힘들 때 도움을 얻을 사람이 있는 경우, 안전감에 대한 만족도 등은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에서 유의하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1인 가구 증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 방향 설정 필요**
  - 기존 가족 제도를 보완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과거 가족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수행하도록 하며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로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전략 마련 필요

# I. 연구의 필요성

## □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미래 사회

-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여럿이 같이 모여 하나의 생활단위를 영위해 나가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으나 고령화, 만혼, 비혼 등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이며 지속적 증가 추세
  -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젊은 세대의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앞으로 1인 가구 증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전형적인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
  - 가구구조 변화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사회제도는 변화를 적절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1인 가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크게 젊은 세대와 고령층에서의 1인 가구 증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
  - 젊은 세대에서의 1인 가구 증가는 결혼 행위, 태도와 선호도의 변화를 반영하며 교육 증대,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 프라이버시 중시, 독립성 및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의 증가, 혼자 살기 쉽게 하는 인프라와 서비스 성장 등과 관련(Jamieson & Simpson, 2013; Raymo, 2015)
  - 고령층에서의 1인 가구의 증가는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과 배우자 상실, 대가족주의의 해체 등과 맞물려 나타남
- 개인의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함에 따라 자발적 동기에 의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1인 가구의 행복 연구는 여전히 미흡

## □ 연구 질문: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떠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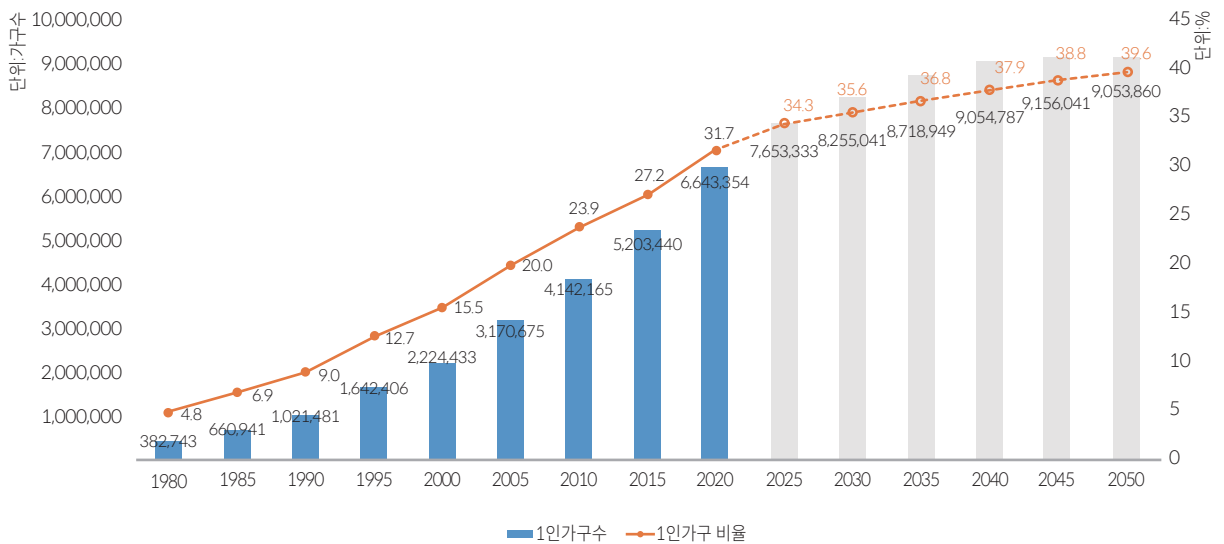
-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할까?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요인은 무엇인가? 세대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까?
- 본 연구는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들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 분석하고, 1인 가구 내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이질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를 청년 가구, 중년 가구, 고령 가구로 구분한 후 각 집단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분석결과는 1인 가구를 위한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II. 1인가구의 실태

### □ 1인가구의 추이 분석

- 1980년 38만 2천여 가구(전체 가구의 4.8%)에 불과하던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 222만여 가구(15.5%), 2010년 414만여 가구(23.9%), 2020년 664만여 가구(31.7%)에 이르러 1인 가구는 현재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 차지(그림 1, 그림 2)
- 1인 가구는 1980년 이후 40여년 만에 약 620만 가구가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음
- 전체 인구와 가구 수가 정체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에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통계청 가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져 2050년 전체 가구의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림 1] 1인 가구 수와 비율 추이(198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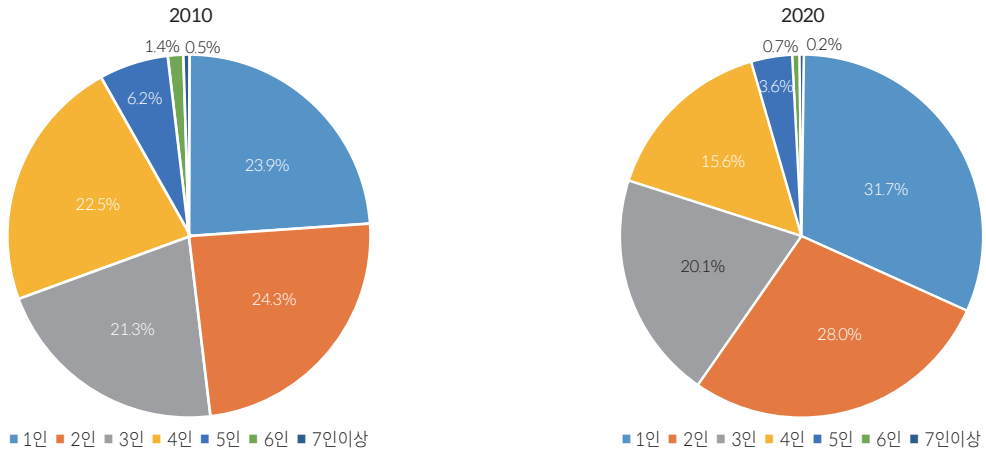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2020); 「장래가구추계」(2025-2050)

- 최근 10년의 가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2),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24.3%)을 차지하였으며 1인(23.9%), 4인(22.5%) 3인(21.3%) 가구 순으로 많았으나 2020년은 1인 가구(31.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2010년 23.9%에서 2020년 31.7%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4인 가구는 2010년 22.5%에서 2020년 15.6%로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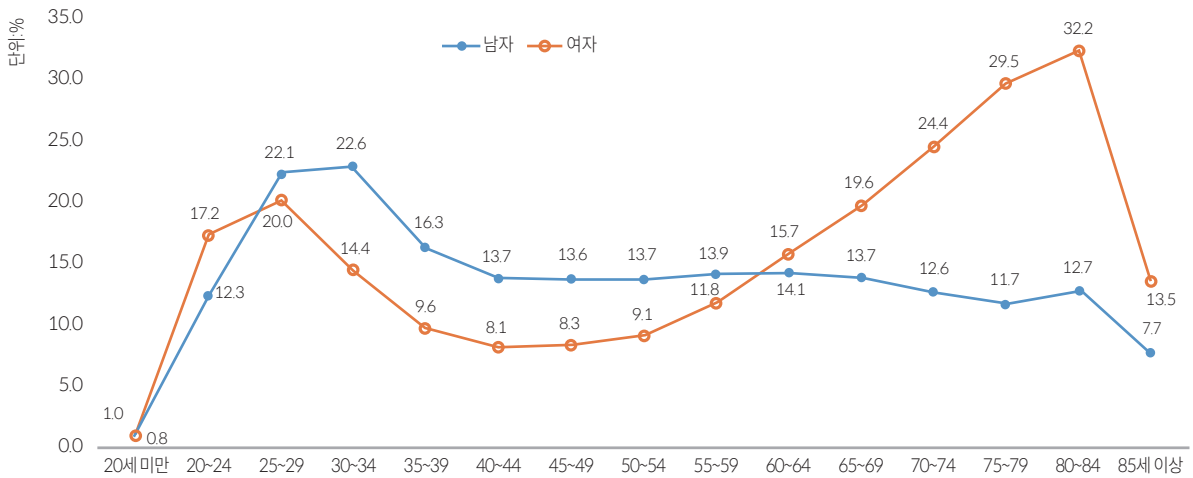
[그림 2] 가구 유형 비율(2010, 202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2020)

- 2020년 기준, 남녀 연령별 인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그림 3), 20대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다가 30대 이후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성별에 따른 연령별 패턴은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청년 성인의 1인 가구는 20대 중반~30대 중반 남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며, 50대 이상 고령의 독신 거주는 여성들 사이에서 더 흔한 것을 알 수 있음
  - 남성 25세-34세 인구의 22%가 1인 가구이며, 이후 남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여성의 경우 25-29세 인구의 20%가 1인 가구이며, 이후 1인 가구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40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그림 3] 연령별 1인 가구 비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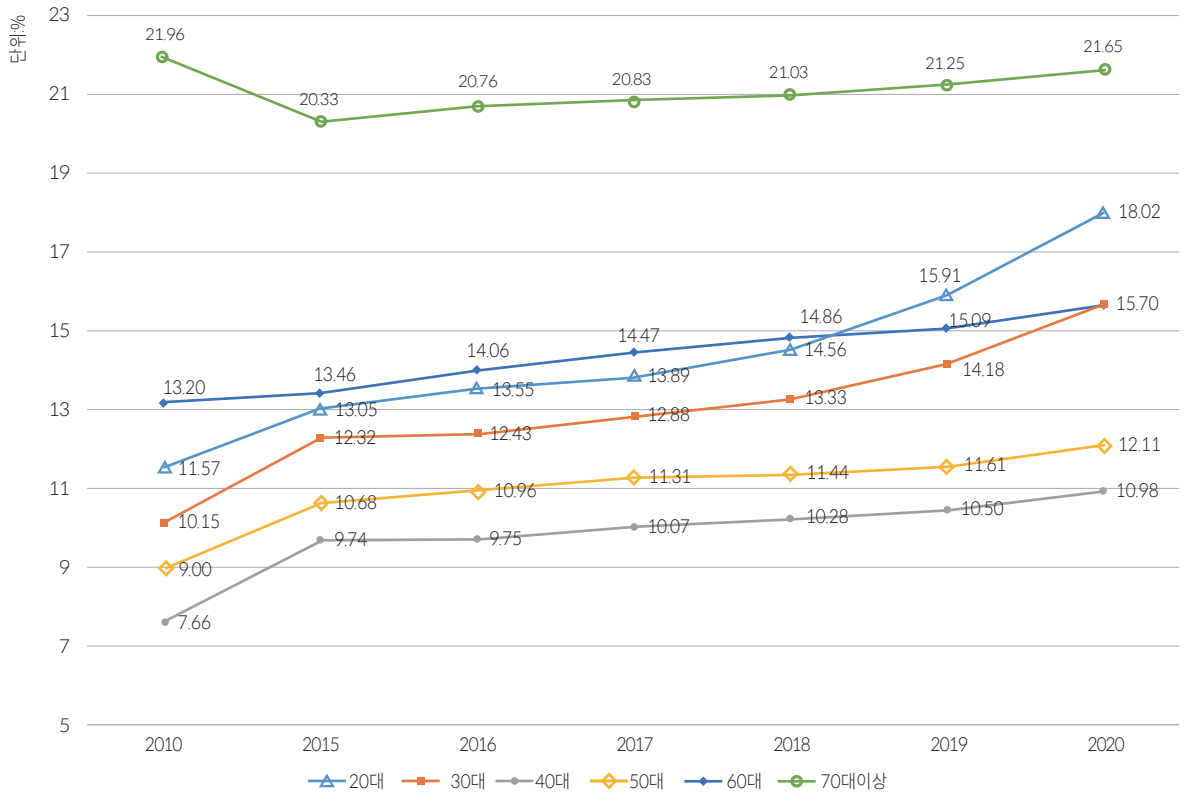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2020)

- 연령별 1인 가구 비율과 가구구조의 변화는 생애주기 흐름과 연결하여 이해 가능
  - 20대와 30대는 학업과 취업 등으로 부모로부터 분거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30대와 40대가 되면 혼인과 출산 등으로 2인, 3인 가구가 증가하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사별 등으로 비자발적 1인가구 증가
- 최근 10년간 세대별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그림 4),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의 증가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2010년에는 전체 20대 인구의 11.6%가 1인 가구였는데, 2020년 18.0%로 비중 증가
  - 2020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그림 5),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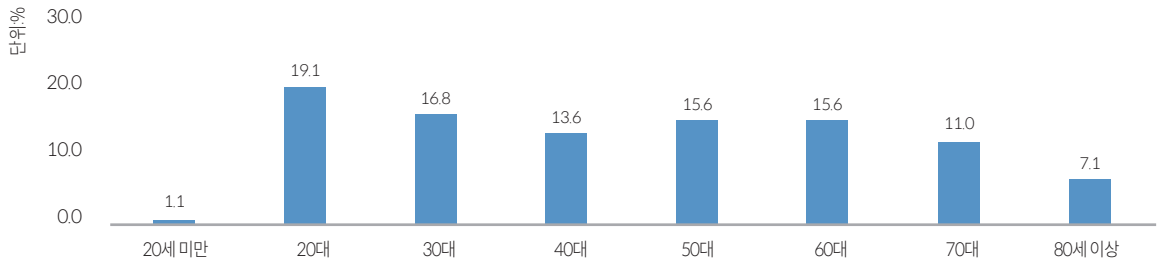


[그림 4] 세대별 1인 가구 비율 변화(2010-2020)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총조사」

[그림 5] 1인 가구 중 연령대별 비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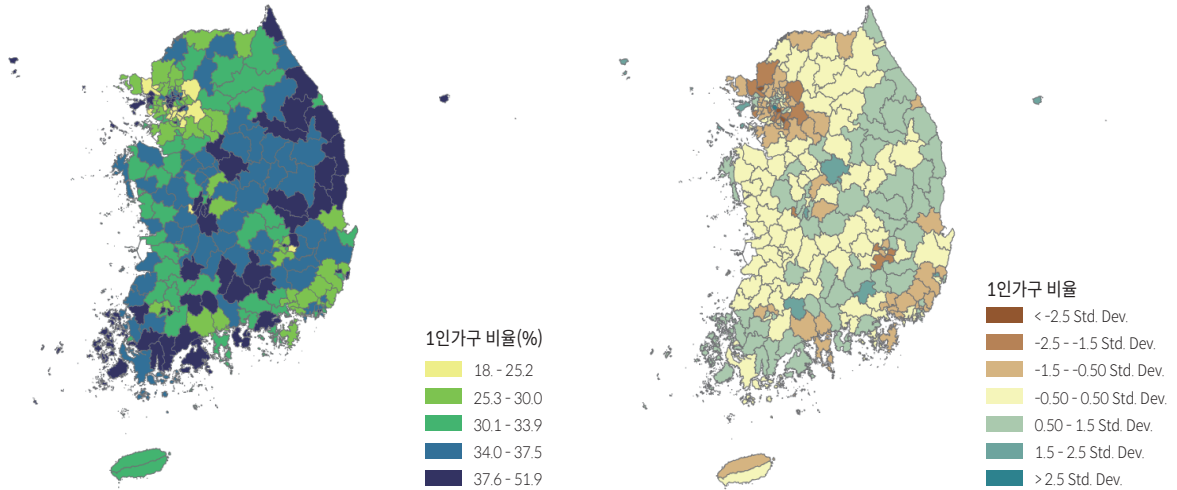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 □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 지역별(시·군·구 단위) 1인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6),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51.91%)이며, 부산 중구(48.80%), 대구 남구(43.28%), 대구 중구(42.53%), 경북 울릉군(42.13%), 인천 옹진군(41.60%), 전남 곡성군(41.60%), 경남 의령군(41.5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의 연령별 분포는 서로 상이하여 서울 관악구는 젊은 층의 1인 가구 비중(20-34세 57.3%)이 높은 반면, 전남 곡성군(65세 이상 53.0%), 경남 의령군(65세 이상 57.8%) 등의 농촌 지역은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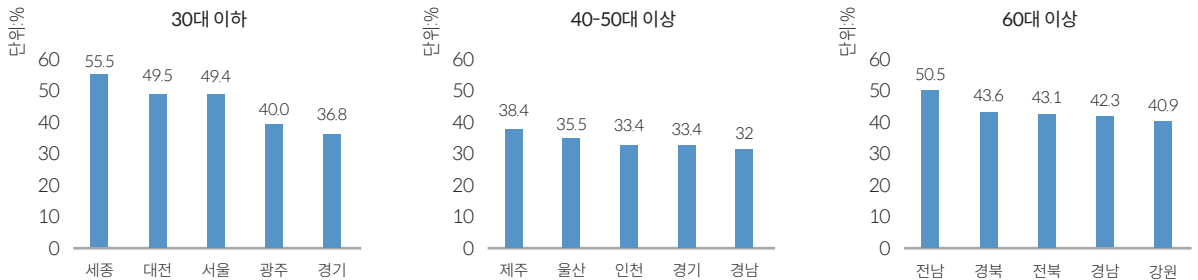
[그림 6] 지역의 1인가구 비율(2020, 시·군·구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 연령대별로 각 시·도의 1인 가구를 살펴보면(그림 7), 세종, 대전, 서울의 1인 가구는 젊은 층의 비중이 높으며, 전남은 60대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음
  - 세종, 대전, 서울 지역은 1인 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30대 이하
  - 전남의 경우 1인 가구 절반이 60대 이상이며, 경북, 전북, 경남, 강원도 60대 이상이 40% 이상으로 높은 편

[그림 7] 특정 연령대의 1인 가구 비율 상위 5개 지역(2020, 시·도별)



자료: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 III. 1인가구의 행복 측정

### □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요인

- 혼자 사는 사람들(1인가구)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다인가구)의 행복을 비교하였을 때 상반된 연구결과 존재
  -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며(Raymo, 2015), 혼자 사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악화(Anson 1988; Kawachi, Kennedy, and Glass 1999), 더 높은 수준의 문제성 알코올 섭취(Hughes and Gove 1981; Joutsenniemi et al. 2007) 그리고 심리적 부분(Harrison, Barrow, Gask, and Creed 1999)과 관련이 있다는 것 발견
  - 반면 다른 연구들은 혼자 사는 미혼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의 행복의 차이가 작거나(Cramer 1993; Hughes and Gove 1981),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잘 산다는 것 확인(Denton and Walters 1999).
-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 연결망, 참여 등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연구 활발
  -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약하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낮은 수준의 웰빙 초래 가능하므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지원 필요(House, Landis, and Umberson 1988; Hughes and Gove 1981; Hughes and Waite 2002).
  - 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기도 하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남성과 자발적 이유로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음(Klinenberg 2012).

### □ 1인가구의 행복 측정 변수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행복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 특징(나이, 소득, 경제상태, 학력 등), 건강, 안전, 일, 여가, 거주환경, 생활 수준, 대인관계 등의 생활영역별 만족도 등을 변수로 선정하고, 특히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
  - 1인 가구의 행복을 다룬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사회적 관계(권혁철·김형용, 2017), 건강(김화진·김경신, 2015), 주거(김진현·김형주, 2017), 여가(민경선, 2020) 등 특정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청년(이인정·김미영, 2021), 중년(권혁철·김형용, 2017), 노년(김가원·황혜신, 2021; 민경선, 2020), 미혼·기혼(강은택 외, 2016) 등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행복과 관련된 건강, 여가, 경제적 측면, 사회관계 등 종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령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는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주관적 인식과 함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신뢰,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 빌릴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등의 존재 여부를 변인으로 하여 분석

[표 1] 본 연구의 측정 변수 설명

구분	변수	설명	
종속변수	행복감	전반적 행복감(0-10점)	
	성별	1= 여성, 0= 남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혼인상태	1= 기혼, 0= 미혼, 사별, 이혼, 별거	
	자가여부	1= 자가, 0= 전세, 월세 등	
	교육수준	1=대학재학 이상, 0=고졸 이하	
	나이	나이, 나이제곱	
	소득(로그)	개인 월소득의 자연로그값	
	거주 지역	1=수도권, 0=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경험	1=있다, 0=없다	
	생활영역 만족도	생활수준	자신의 삶에 있어 생활수준 만족도 (0-10점)
		건강	자신의 삶에 있어 건강 만족도(0-10점)
		대인관계	자신의 삶에 있어 대인관계 만족도(0-10점)
안전감		자신의 삶에 있어 안전감 만족도(0-10점)	
공동체소속감		자신의 삶에 있어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0-10점)	
미래의 안정성		자신의 삶에 있어 미래의 안정성 만족도(0-10점)	
좋아하는 일 시간 양		자신의 삶에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만족도(0-10점)	
동네환경		자신의 삶에 있어 동네환경 만족도(0-10점)	
일 만족감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0-10점)	
사회적 관계	일반 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5점척도)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빌릴 사람 존재 여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빌릴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1=있다, 0=없다)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존재 여부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1=있다, 0=없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존재 여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삶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1=있다, 0=없다)	

## IV. 1인가구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 □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조사대상은 전국 거주 15세 이상 남녀이며, 조사 완료된 표본 수는 17,357명
  - 조사방법은 가구 방문하여 가구원 전원을 면접 조사하였고, 본 연구는 전체 표본 중 가구원이 1명인 가구를 1인 가구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분류하였으며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표 2] 연구대상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전체표본 (N=17,357)	1인가구 (N=1,936)	다인가구 (N=15,421)
성별	여성	50.4%	56.6%	49.6%
	남성	49.6%	43.4%	50.4%
연령	15-19세	5.0%	0.4%	5.6%
	20대	14.7%	12.1%	15.0%
	30대	14.8%	17.5%	14.5%
	40대	18.0%	12.8%	18.6%
	50대	19.0%	12.7%	19.8%
	60대 이상	28.4%	44.5%	26.4%
학력	대학재학 이상	51.3%	43.2%	52.3%
	고졸 이하	48.7%	56.8%	47.7%
혼인상태	미혼	29.8%	42.1%	28.2%
	기혼	60.2%	4.7%	67.2%
	사별	6.5%	35.7%	2.9%
	이혼	3.2%	16.0%	1.6%
	별거	0.2%	1.5%	0.1%
기초생활수급자 경험	있다	2.6%	6.8%	2.1%
	없다	97.4%	93.2%	97.9%
개인 월소득	소득없음	0.9%	1.5%	0.8%
	100만원미만	4.4%	23.3%	2.1%
	100-200만원	7.6%	18.2%	6.3%
	200-300만원	11.7%	28.7%	9.6%
	300-400만원	16.8%	19.4%	16.4%
	400-500만원	17.7%	5.5%	19.2%
	500-600만원	18.1%	2.1%	20.2%
	600-700만원	10.3%	0.5%	11.6%
	700-800만원	6.0%	0.5%	6.7%
	800-900만원	2.8%	0.2%	3.2%
	900-1000만원	1.6%	0%	1.8%
	1000만원 이상	2.0%	0.2%	2.2%

### □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행복 비교

-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행복감과 만족감 차이 분석(t검정) 결과(표 3), 전반적 행복감과 생활영역별 만족도, 일반적 신뢰도, 갑자기 큰돈 필요한 경우 빌릴 사람 존재,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존재,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존재 등에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냄
  - 전반적 행복감은 1인 가구 6.22점, 다인 가구 6.61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활수준 만족도, 건강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안전감 만족도, 공동체소속감 만족도, 미래 안정에 대한 만족도, 좋아하는 일 시간의 양 만족도, 동네환경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 일반적 신뢰, 큰 돈 빌릴 사람 존재,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존재,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경향

[표 3]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평균 비교(t검정)

변수	1인가구 (N=1,936)	다인가구 (N=15,421)	t	유의확률
전반적 행복감	6.22	6.61	-586.569	.000
생활수준 만족도	5.48	6.17	-1023.137	.000
건강 만족도	5.98	6.57	-693.204	.000
대인관계 만족도	6.19	6.47	-380.731	.000
안전감 만족도	5.90	6.30	-552.922	.000
공동체소속감 만족도	5.55	5.98	-520.693	.000
미래안정 만족도	5.50	6.01	-650.840	.000
좋아하는 일 시간의 양 만족도	6.01	6.10	-115.714	.000
동네환경 만족도	5.92	6.14	-306.918	.000
일 만족도	6.31	6.33	-32.926	<.001
일반적 신뢰	3.39	3.49	-298.544	.000
큰 돈 빌릴 사람 존재	0.74	0.85	-625.757	.000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존재	0.82	0.96	-1391.426	.000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존재	0.89	0.95	-504.562	.000

### □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행복 영향 요인 비교

-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구분하여 회귀 분석 실시
  - 1인 가구 분석 결과(표 4), 모형1은 인구사회적 특징만을 포함한 모델로서 나이가 적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가 거주, 대학 재학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경험이 없는 경우, 비수도권 거주에서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나타냄

- 모형 2는 인구사회 변수와 만족도 변수를 포함한 모델로서 생활수준, 건강, 안전감, 미래의 안정, 동네환경, 일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남
- 모형 3은 인구사회변수, 생활영역 만족도 변수, 사회적 관계 등의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델로 약 49.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 4] 1인가구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변수	모형1 B(β)	모형2 B(β)	모형3 B(β)
인구 사회 특성	성별 <sup>a</sup>	.452(.141)***	.250(.078)***	.237(.074)***
	혼인 <sup>b</sup>	-.236(-.031)	.030(.004)	.038(.005)
	자가거주 <sup>c</sup>	.224(.070)**	-.060(-.019)	-.056(-.018)
	교육수준 <sup>d</sup>	.212(.066)*	.021(.006)	.003(.001)
	나이	-.042(-.490)**	-.021(-.246)*	-.016(-.192)
	나이제곱	.000(.335)*	.000(.232) †	.000(.164)
	소득(로그)	.298(.147)***	-.240(-.119)***	-.248(-.122)***
	거주 지역 <sup>e</sup>	-.411(-.129)***	-.143(-.045)**	-.150(-.047) †
	기초생활수급자경험 <sup>f</sup>	-.429(-.067)**	.038(.006)	.065(.010)
생활 영역 만족도	생활수준		.260(.273)***	.234(.246)***
	건강		.077(.098)***	.083(.106)***
	대인관계		.020(.021)	.017(.018)
	안전감		.057(.061)*	.052(.056)*
	공동체소속감		.021(.025)	.018(.021)
	미래안정		.126(.143)***	.120(.136)***
	좋아하는 일 시간 양		.030(.034)	.036(.039) †
	동네환경		.053(.052)*	.053(.052)*
	일		.234(.224)***	.221(.211)***
사회적 관계	일반적 신뢰			.192(.094)***
	큰 돈 빌릴 사람 존재 <sup>g</sup>			.126(.035) †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존재 <sup>h</sup>			.030(.007)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존재 <sup>i</sup>			.054(.010)
상수		3.060***	5.025***	4.509***
Adjusted R <sup>2</sup>		0.091	0.486	0.495
F		23.343***	107.147***	90.878***

주: 1) 더미변수의 기준범주: a 여성, b 기혼, c 자가, d 대학재학 이상, e 수도권 거주, f 기초생활수급자 경험 있음, g 큰 돈 빌릴 사람 있음, h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있음, i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있음  
 2) † p<0.1, \*p<0.05, \*\*p<0.01, \*\*\*p<0.001

- 다인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5) 배우자 있는 기혼의 경우, 대인관계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좋아하는 일의 시간에 양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나타냄
  - 모형1은 인구사회적 특징만을 포함한 모델로서 나이가 적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의 경우, 자가 거주, 대학 재학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경험이 없는 경우, 비수도권 거주에서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나타냄
  - 모형 2는 인구사회 변수와 만족도 변수를 포함한 모델로서 생활수준, 건강, 안전감, 미래의 안정, 좋아하는 일 시간의 양, 동네환경, 일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남
  - 모형 3은 인구사회변수, 만족도 변수, 사회적 관계 등의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델로 약 46.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 5] 다인 가구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변수	모형1 B(β)	모형2 B(β)	모형3 B(β)
인구 사회 특성	성별 <sup>a</sup>	.083(.030)***	.160(.058)***	.155(.056)***
	혼인 <sup>b</sup>	.464(.159)***	.265(.090)***	.258(.088)***
	자가거주 <sup>c</sup>	.124(.032)***	-.035(-.009)	-.049(-.013)*
	교육수준 <sup>d</sup>	.179(.065)***	-.022(-.008)	-.026(-.009)
	나이	-.022(-.278)***	-.033(-.409)***	-.032(-.399)***
	나이제곱	.000(.152)**	.000(.350)***	.000(.337)***
	소득(로그)	.400(.159)***	.031(.012) †	.028(.011)
	거주 지역 <sup>e</sup>	-.283(-.103)***	-.168(-.061)***	-.173(-.063)***
	기초생활수급자경험 <sup>f</sup>	-.664(-.068)***	-.119(-.012) †	-.084(-.009)
생활 영역 만족도	생활수준		.228(.234)***	.214(.220)***
	건강		.071(.091)***	.072(.092)***
	대인관계		.045(.049)***	.044(.048)***
	안전감		.071(.079)***	.074(.082)***
	공동체소속감		.003(.003)	.004(.005)
	미래안정		.098(.117)***	.093(.111)***
	좋아하는 일 시간 양		.072(.086)***	.071(.084)***
	동네환경		.027(.029)***	.029(.031)***
	일		.203(.218)***	.194(.208)***
사회적 관계	일반적 신뢰			.160(.087)***
	큰 돈 빌릴 사람 존재 <sup>g</sup>			.036(.009)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존재 <sup>h</sup>			-.164(-.022)***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존재 <sup>i</sup>			.100(.015)*



변수	모형1 B(β)	모형2 B(β)	모형3 B(β)
상수	0.837*	1.705***	1.367***
Adjusted R <sup>2</sup>	0.071	0.453	0.461
F	130.054***	699.357***	590.236***

주: 1) 더미변수의 기준범주: a 여성, b 기혼, c 자가, d 대학재학 이상, e 수도권 거주, f 기초생활수급자 경험 있음, g 큰 돈 빌릴 사람 있음, h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있음, i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있음  
 2) † p<0.1, \*p<0.05, \*\*p<0.01, \*\*\*p<0.001

- 1인과 다인 가구의 행복 영향요인을 종합 비교한 결과(표 6),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남
  - 생활수준 만족도, 건강 만족도, 안전 만족도, 미래안정 만족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 만족도, 동네환경 만족도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서 유의하게 행복감에 정(+)의 효과를 나타냄. 다만, 대인관계 만족도의 경우 1인 가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인 가구는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나타냄
  - 다인 가구의 경우, 아플 때 도움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행복감이 낮은 경향을 보여 1인 가구와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냄

[표 6]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행복 영향요인 비교

	변수	1인 가구 B(β)	다인 가구 B(β)
인구 사회 특성	성별 <sup>a</sup>	.237(.074)***	.155(.056)***
	혼인 <sup>b</sup>	.038(.005)	.258(.088)***
	자가거주 <sup>c</sup>	-.056(-.018)	-.049(-.013)*
	교육수준 <sup>d</sup>	.003(.001)	-.026(-.009)
	나이	-.016(-.192)	-.032(-.399)***
	나이제곱	.000(.164)	.000(.337)***
	소득(로그)	-.248(-.122)***	.028(.011)
	거주 지역 <sup>e</sup>	-.150(-.047) †	-.173(-.063)***
	기초생활수급자경험 <sup>f</sup>	.065(.010)	-.084(-.009)
생활 영역 만족도	생활수준	.234(.246)***	.214(.220)***
	건강	.083(.106)***	.072(.092)***
	대인관계	.017(.018)	.044(.048)***
	안전감	.052(.056)*	.074(.082)***
	공동체소속감	.018(.021)	.004(.005)
	미래안정	.120(.136)***	.093(.111)***
	좋아하는 일 시간 양	.036(.039) †	.071(.084)***
	동네환경	.053(.052)*	.029(.031)***
일	.221(.211)***	.194(.208)***	

	변수	1인 가구 B(β)	다인 가구 B(β)
사회적 관계	일반적 신뢰	.192(.094)***	.160(.087)***
	큰 돈 빌릴 사람 존재 <sup>g</sup>	.126(.035) †	.036(.009)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존재 <sup>h</sup>	.030(.007)	-.164(-.022)***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존재 <sup>i</sup>	.054(.010)	.100(.015)*
	상수	4.509***	1.367***
	Adjusted R <sup>2</sup>	0.495	0.461
	F	90.878***	590.236***

주: 1) 더미변수의 기준범주: a 여성, b 기혼, c 자가, d 대학재학 이상, e 수도권 거주, f 기초생활수급자 경험 있음, g 큰 돈 빌릴 사람 있음, h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있음, i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있음  
 2) † p<0.1, \*p<0.05, \*\*p<0.01, \*\*\*p<0.001

### □ 세대별 1인가구의 행복영향요인 비교분석

- 1인 가구 내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이질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를 30대 이하 청년 가구, 40-50대 중년 가구, 60대 이상 고령 가구로 구분한 후 세 집단의 전반적 행복감 비교(표 7)
  - 3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행복감 평균 6.60으로 가장 높았으며, 40-50대 1인 가구 6.22, 60대 이상 1인 가구 5.96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

[표 7] 세대별 1인 가구의 전반적 행복감 비교

세대별 구분	평균	SD	F	P	Scheffe
30대 이하 (a)	6.60	1.327	75269.284	.000	c<b<a
40-50대 (b)	6.22	1.645			
60대 이상 (c)	5.96	1.685			

- 1인 가구 내의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이질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를 30대 이하 청년 가구, 40-50대 중년 가구, 60대 이상 고령 가구로 구분한 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표 8)
  - 3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분석 결과, 대학재학 이상,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
  - 40-50대 중년 1인 가구 분석 결과,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동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게 나타남

-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 분석 결과, 여성의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생활수준, 안전감, 미래의 안정,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동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은 경향을 보임
- 또한,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사람이 있는 경우,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나타냄

[표 8] 세대별 1인 가구의 행복 영향 요인 비교

	변수	30대 이하 B(β)	40-50대 B(β)	60대 이상 B(β)
인구 사회 특성	성별 <sup>a</sup>	-.058(-.022)	.174(.053) †	.469(.143)***
	혼인 <sup>b</sup>	-.173(-.012)	.101(.018)	.316(.048)
	자가거주 <sup>c</sup>	-.106(-.027)	.009(.003)	-.048(-.014)
	교육수준 <sup>d</sup>	.416(.104)**	-.256(-.078)*	-.138(-.029)
	나이	-.221(-.817) †	.125(.462)	-.022(-.099)
	나이제곱	.003(.781) †	-.001(-.516)	.000(.030)
	소득(로그)	.093(.024)	.045(.012)	-.212(-.094)*
	거주 지역 <sup>e</sup>	-.303(-.119)***	-.216(-.066)*	-.024(-.008)
	기초생활수급자경험 <sup>f</sup>	.143(.008)	-.282(-.022)	.006(.001)
생활 영역 만족도	생활수준	.129(.150)***	.282(.272)***	.175(.180)***
	건강	.022(.028)	-.026(-.027)	.063(.077) †
	대인관계	-.009(-.011)	.018(.017)	-.112(-.108)*
	안전감	.083(.103)*	.058(.061)	.171(.177)***
	공동체소속감	.056(.075)	.020(.021)	-.043(-.048)
	미래안정	.013(.016)	.070(.072)	.136(.149)**
	좋아하는 일 시간 양	-.020(-.025)	.035(.036)	.088(.092)*
	동네환경	.027(.033)	-.098(-.087)*	-.092(-.086)*
	일	.366(.404)***	.457(.447)***	.353(.340)***
사회적 관계	일반적 신뢰	.165(.104)*	.182(.091)**	.084(.040)
	큰 돈 빌릴 사람 존재 <sup>g</sup>	-.038(-.009)	-.024(-.006)	.209(.063) †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존재 <sup>h</sup>	.057(.015)	-.008(-.002)	.305(.078)*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존재 <sup>i</sup>	-.199(-.023)	-.097(-.017)	-.172(-.036)
	상수	3.782	-2.590	5.235
	Adjusted R <sup>2</sup>	0.492	0.599	0.518
	F	21.512***	34.686***	24.661***

주: 1) 더미변수의 기준범주: a 여성, b 기혼, c 자가, d 대학재학 이상, e 수도권 거주, f 기초생활수급자 경험 있음, g 큰 돈 빌릴 사람 있음, h 아플 때 도움 얻을 사람 있음, i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할 사람 있음  
 2) † p<0.1, \*p<0.05, \*\*p<0.01, \*\*\*p<0.001

## V. 결론: 혼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제고 전략

### □ 혼자 사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이에 대한 대응 필요

-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럿이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전반적 행복감, 만족도, 신뢰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이에 대한 전략 마련 시급
  - 최근 수십 년 동안 공동체 중 최소단위인 가족 중심의 생활이 변모하였으며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사회제도 마련은 더딘 측면이 있음
  - 혼자 살게 되면 기존 가족 제도와 달리 혈연적 가족이 더는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우울감 해소, 사회적 고립 예방, 경제생활 기반 마련 등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 지원 마련 필요
  - 가족해체로 인한 비자발적 1인 가구 중 경제사회적 약자는 고립 가구의 특성을 가지므로 사회적 연결망 구축,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 필요
- 1인 가구 증가는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변화 필요
  - 1인 가구 소득은 전체의 평균 소득에 비해 적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1인 가구 복지 정책 추진
  - 특히, 최근 20대와 30대의 자발적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만혼, 비혼, 저출산 등의 이슈와 연계한 연구 및 미래전략 수립 필요

### □ 행복감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생활수준’과 ‘일’에 대한 만족도 향상 필요

-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는 모든 가구에 중요한 행복 요인이지만, 상대적으로 1인 가구는 생활 수준과 일에 대한 만족도에, 다인 가구는 일과 생활의 양립, 여가 등에 좀 더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beta_{1인가구}=0.246$ ,  $\beta_{다인가구}=0.220$ , 각각  $p<.001$ )와 일에 대한 만족도( $\beta_{1인가구}=0.211$ ,  $\beta_{다인가구}=0.208$ , 각각  $p<.001$ )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1인 가구에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상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 행복도가 높게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김미곤, 2015)를 고려하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 □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 다양한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전략 마련

- 1인 가구는 도시, 농촌, 수도권, 지방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므로 지역적 맥락과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세심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대도시의 1인 가구는 청년 가구 중심이고, 농촌 지역은 고령 1인 가구 중심
  - 지역별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위기 지역에서 고령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교통,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접근성 관리와 연계한 정책 강화 필요
  - 대도시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청년 1인 가구가 비수도권지역의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대체적으로 행복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수도권 도시 지역의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저렴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양질의 일자리, 문화생활 관련한 정책 지원 필요
-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 안전성 확보, 사회적 연결망 등의 정책 지원 필요
  - 60대 이상의 고령 1인 가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노인은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선행연구(김가원·황혜신, 2021)와 일치
  - 세대별 1인 가구 분석결과, 다른 연령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개인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노년기 경제적 수입 활동이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고령 1인 가구의 소득분포가 개인의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46.3%를 차지하여 다른 집단(청년 1인 가구 6.3%, 중년 1인 가구 7.6%)과 달리 저소득 분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
  - 노인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경향이 있으며 노인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생계수단으로 볼 수 있음(송유진, 2007; 강은택 외, 2016)
  - 다른 연령집단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안전감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유의미하게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beta=0.177, p<.001$ ),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범죄예방, 재해재난 방지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고령 1인 가구는 미래에 대한 안정감,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경우,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보임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사회적 연결망의 확충 전략 필요
  -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고, 향후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장기화되는 노년기를 고려해 보면 소득보장 등 경제적 지원, 안전성 확보, 사회적 관심, 건강

돌봄 등 종합적 정책 지원을 통해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필요

-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행복감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건강, 돌봄, 식생활 등의 사회적 지원 시급
  - 특히,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혼한 남성 노인들은 자녀의 지지가 적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 건강 역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경향이 큼(이호선, 2018)
  - 여성의 경우 후기 노년으로 갈수록 사별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간병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거나 부부관계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면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Kim & Woo, 2017; 김진영, 2021)
  -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행복감의 차별성을 확인함으로써 이혼과 사별을 이유로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이 삶의 질, 행복감, 삶의 만족에 있어 취약한 집단으로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이 시급함을 확인

#### □ 기존 가족 제도를 보완하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 재정립

- 1인 가구 증가로 과거 가족이 수행했던 많은 기능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로 대체될 필요
  -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음에도 노년기에도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가족 기능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담당하기 때문
  -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삶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과 세제 등 각종 제도는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역 단위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단위 공동체가 가족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결과 우울, 돌봄 부재, 노인 빈곤, 고독사 등 사회문제 발생
  -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과학기술 발달이 가족이 없는 빈 공간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것과는 별도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정서적 만족감, 행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참고문헌

- 강은택·강정구·마강래(2016) 1인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미혼 1인가구와 기혼 1인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3-23.
- 권혁철·김형용(2017) 홀로 살아야 행복한 중년 남성의 삶: 4050세대의 1인 남성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주고나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3), 267-290.
- 김가원·황혜신(2021) 노인 1인가구의 연령대별 행복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6(1), 45-70.
- 김미곤(2015)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 보건·복지 Issues&Focus 274, 1-8.
- 김진영(2021) 결혼지위와 결혼만족도가 건강과 갖는 관계: 연령 및 소득과의 상호작용 효과, 보건사회연구 41(4), 280-294.
- 김진현·김형주(2017) 1인가구 특성이 주거유형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30(3), 91-109.
- 김화진·김경신(2015) 1인 가구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광주지역 1개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115-128.
- 민경선(2020) 노인의 여가생활 특성과 여가자원이 여가생활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44(3), 45-57.
- 송유진(2007)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 1인 가구의 특성,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학회지 18(1), 147-160.
- 이인정·김미영(2021) 1인 가구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7), 51-60.
- 이호선(2018) 한일 비교를 통한 황혼 이혼 남성 노인 적응 과정 연구, 일본문화연구 67, 293-330.
- Anson, O. (1988) Living arrangements and women's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26: 201-208.
- Cramer, D. (1993). Living alone, marital status, gender and health.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3: 1-15.
- Denton, M. and Walters, V. (1999). Gender differences in structural and behavioral determinants of health: An analysis of the social production of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48: 1221-1235.
- Harrison, J., Barrow, S., Gask, L., and Creed, F. (1999). Social determinants of GHQ score by postal survey. Journal of Public Health 21: 283-288.

- House, J.S., Landis, K.R., and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Hughes, M.E. and Gove, W.R. (1981). Living alone, social integration,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 48—74.
- Hughes, M.E. and Waite, L.J. (2002). Health in household context: Living arrangements and health in late middle ag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1—21
- Jamieson, L. and Simpson, R. (2013). *Living alone: Globalization, identity and belongin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Joutsenniemi, K., Martelin, T., Kestilä, L., Martikainen, P., Pirkola, S., and Koskinen, S. (2007). Living arrangements, heavy drinking and alcohol dependence. *Alcohol and Alcoholism* 42: 480—491
- Kawachi, I., Kennedy, B.P., and Glass, R. (1999). Social capital and self-rated health: A contextu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 1187—1193.
- Kim, J. and Woo, H. (2017) A longitudinal study on marital status and depression: variations by gender and age cohorts, *한국연구학* 40(2), 79-105.
- Klinenberg E. (2012).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New York: Penguin Books.
- Raymo, J. M. (2015) Living alone in Japan: Relationships with happiness and health, *Demographic Research* 32(46): 1267-1298.



##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 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22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외	2021.7.8.
23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1.7.22.
24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8.5.
25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삶의 질 그룹장)	2021.8.19.
2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9.3.
27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9.16.
28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거버넌스 그룹장)	2021.10.7.
29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21.
30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1.4.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31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11.18.
32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9.
33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6.
34	인구총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1.12.23.
35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30.
36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0.
37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1.24.
38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2.2.7.
39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2.2.21.
40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2.3.7.
4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3.21.
42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4.4.
43	기후변화 5대 영향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혁신성장그룹장)	2022.4.18.
44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문지혜(거버넌스그룹 연구행정원) 황희정(혁신성장그룹 연구행정원)	2022.5.2.
45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5.16.
46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5.30.
47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6.13.
48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2.7.1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http://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http://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